



2005년 6월 13일

롤스-로이스, 미래 엔진 개발을 위한 비행시험용 항공기 구매

롤스-로이스사는 보잉 747-200 기를 미래 엔진 개발 프로그램에 사용할 비행시험용(flying test bed) 항공기로 개조 중이다.

2007년 중순 이 항공기에 장착해 시험하게 될 최초 엔진은 Trent 1000 으로, 현재 이 엔진은 Boeing 787 드림라이너기용 최초 엔진으로 개발 중에 있다.

롤스-로이스가 에어 Air Atlanta Icelandic 사로부터 인수한 RB211-524C2 엔진 탑재 항공기는 현재 텍사스에 위치해 있다. 이 항공기는 그곳에서 기체 통합 전문업체인 L-3 Communications Integrated Systems 사가 개조해 Waco 에 위치한 이 회사의 설비시설을 기지로 사용할 예정이다. 현재 이 항공기는 롤스-로이스가 N787RR 이라는 명칭으로 재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.

Trent 1000 비행테스트베드 프로그램 매니저인 클라이브 바튼(Clive Barton) 는 “항공기를 자체 보유함으로써, 향후 비행 시험 프로그램에 종합적인 유동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. 보잉 747 기는 향후 개발과 관련해 있을 수 있는 광범위한 범위의 엔진 크기와 추력 시험을 수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상적인 시험 플랫폼이다.”라고 말했다.

Trent 의 기존 네 가지 모든 버전에 대한 항공 시험은 에어버스사나 보잉사 소유의 비행시험용 항공기를 이용해 실시해 왔다.

Notes :

1. 1960년대 까지 롤스-로이스는 영국의 브리스톨과 노팅햄 근처 Hucknall 에 기지를 둔 자체 비행시험단에서 각종 항공기를 운용하였다. 이러한 전통은 RB211 엔진 시리즈에 대한 개발 시험과 함께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.
2. 소음 측정과 흡입장치, 팬블레이드 파손부품 보류능력 및 촉한기 모의시험 등의 인증 요구조건을 포함하는 전문 외부 지상 시험은 이 기지에서 계속 실시되고 있다. 그러나 인근 지역사회의 환경 개선을 위해 이러한 시험 활동 장소를 이전하기로 결정되었다.
3. Hucknall 에서의 엔진 시험은 2007년 끝나며, 이 작업은 미국 미시시피주에 소재한 미항공우주국(NASA)의 존 스텐니스 우주센터(John C Stennis Space Centre)로 이양될 것이다.
4. 롤스-로이스는 4개 시장(민간 항공우주, 방위 항공우주, 해양선박 및 에너지 부문)에서 활동하고 있다. 롤스-로이스는 경쟁력있는 제품 영역 개발을 목적으로 이들 각 부문의 개척 가능한 기술과 능력에 투자하고 있다.
5. 롤스-로이스 직원수는 전세계 35,000명에 달하며 50개국에 지사, 서비스 센터 또는 생산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.

6. 롤스-로이스 그룹은 지난 한해 59 억 파운드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이중 51%는 민간 항공우주 부문이 차지하였다.
7. L-3 Communications Integrated Systems(L-3/IS)사는 특수 목적용의 다수의 747 기 파생기종을 포함해 125 종 이상의 항공기 15,000 대 이상을 개조해 온 세계 선두업체이다. 텍사스주의 Greenville 에 본사를 두고 있는 L-3 IS 는 텍사스주의 Austin 과 Waco, 미시시피주의 Madison, 켄터키주의 Lexington, 오클라호마주의 Tulsa, 매릴랜드주의 Easton, 버지니아주의 Newport News 및 호주의 Canberra 에 주요 사업장을 두고 있다.
8. 뉴욕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L-3 Communications사는 정보(Intelligence), 감시(Surveillance), 정찰(Reconnaissance)(ISR) 시스템, 보안통신 시스템, 항공기 현대화, 훈련 체계 및 정부 서비스 부문 세계 제일의 공급회사인 동시에, 고도의 기술 제품을 공급하는 세계적인 기업이다. 주 고객으로는 미 국방성, 국토안보부(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), 미국 정부 정보기관 및 항공우주 주 계약업체들이 있다. L-3 Communications사의 웹사이트(www.l-3com.com)를 방문하면 이 회사에 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.

문의: CPR 차유정 02-739-7353 / junecha@icpr.co.kr
추윤희 02-739-7313 / katechoo@icpr.co.kr